



여거 르쿨트르가 새롭게 선보이는 세 가지 리베르소

출시 이후 시대와 유행을 초월하여 사랑받는 리베르소는 아르데코의 전통적 코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고 간결한 라인과 상징적인 직사각형 케이스, 전통적인 가드룬 장식, 놀라운 회전 시스템이 시계에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1931년에 출시된 최초의 리베르소는 폴로 경기 중 시계의 다이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도에 주둔 중인 한 영국군 장교가 고안한 아이디어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회전 기능이 장착된 리베르소 모델은 스위스를 넘어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케이스를 돌리면 나타나는 깨끗한 다이얼 뒷면은 맞춤 제작하여 원하는 장식을 더하거나 두 번째 다이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 SIHH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는 리베르소 컬렉션의 특별한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파글리아노 리미티드
- 리베르소 원 듀에토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2019 SIHH에서 소개된 리베르소 트리뷰트 라인의 세 가지 새로운 모델은 시계 애호가와 전문가, 대중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1930년대의 역사적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리베르소의 성공적인 요소들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자극히 간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는 다이얼의 대담한 컬러와 까사 파글리아노(Casa Fagliano)가 제작한 조화로운 스티치 장식 스트랩으로 시계의 매력을 한층 강조해 주었습니다. 와인 레드, 버건디, 크림슨, 오베르진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깊고 짙은 레드 컬러의 시계가 더욱이 매력적인 자태를 드러냅니다. 뜨거운 열정을 반영하는 이 컬러는 여거 르쿨트르의 마스터 워치메이커와 장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개의 리베르소 시계를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오브제의 애호가들에게도 특별한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반짝이는 새틴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유니크한 실루엣이 돋보입니다.

아르데코에 영감을 얻은 시계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는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는 와인 컬러의 다이얼이 특징이며, 간결한 디테일이 매력적인 대조 효과를 연출합니다. 상징적인 가드룬 장식과 도파네 핸즈, 수공 아플리케 인덱스를 비롯하여 6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 디자인 및 제작, 조립이 모두 이루어진 매뉴얼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인 여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2로 구동됩니다. 회전 원리를 충실히 계승한 시계의 하얀 도화지같이 깨끗한 뒷면은 나만의 개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까사 파글리아노 스트랩

정교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의 브러싱 처리된 선레이 패턴 다이얼과 어울리는 가죽 스트랩을 완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와인 컬러에 스타칭 장식이 돋보이는 스트랩은 리베르소와 마찬가지로 국제 폴로 챔피언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명한 아르헨티나 폴로 부츠 제조사인 까사 파글리아노(Casa Fagliano)가 제작하였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와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파글리아노 리미티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1994년 예거 르쿨트르가 리베르소 컬렉션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독창적인 듀오페이스 콘셉트가 장착되었습니다. 고도의 정밀성을 갖춘 이 혁신적인 기술은 아름다운 메커니즘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10.3mm 두께의 케이스에 장착된 두 개의 다이얼은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54A/2로 구동되며, 두 개의 타임존을 선보입니다. 앞면의 6시 방향에 위치한 표시창을 통해 스몰 세컨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뒷면 다이얼에 장착된 낮밤 인디케이터는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표시합니다.

무한한 기쁨을 선사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파글리아노 리미티드는 오직 1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됩니다. 가장 작은 섬세한 디테일부터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려한 디테일까지 모두 선보이며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세련된 실루엣의 핑크 골드 케이스, 깔끔하게 기능을 표시하는 2개의 텍스처 처리 다이얼을 비롯하여 브러싱 처리된 선레이 패턴 블루 컬러의 앞면과 실버 기요세 버전의 뒷면이 매력적인 실루엣을 드러냅니다. 까사 파글리아노가 수공 제작한 코도반 가죽 스트랩은 섬세한 스타칭 장식이 돋보이는 강렬한 2가지 블루 컬러로 선보이며, 우아한 대조 효과를 연출합니다.

리베르소 원 듀에토

2019 SIHH의 장엄한 자연 테마를 배경으로, 예거 르쿨트르는 세련된 케이스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리베르소 원 듀에토와 같은 다양한 여성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1930년대 모델을 재해석한 세 가지 타임피스를 통해 더욱 다채로우진 다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며 부드러운 타치를 선사하는 새로운 리베르소 원 듀에토 핑크 골드의 스트랩 컬러는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버건디 혹은 크림슨으로 불리기도 하는 깊고 아름다운 레드 컬러의 스트랩은 약간의 광택이 더해진 새틴 피니싱으로 장식되어 모든 피부톤에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케이스 양쪽에 세팅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특징인 주얼리 위치의 심장부에는 독창적인 듀에토 콘셉트가 탑재되어,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4 한 개의 동일한 무브먼트로 구동되는 두 개의 한츠가 눈부신 유희를 펼쳐 보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2개의 다이얼

리베르소 원 듀에토의 앞면에 장식된 실버 피니싱 선레이 패턴의 기요세 다이얼은 우아한 매력을 연출하며 심플하지만 세련된 스타일의 데일리 룩과 조화를 이룹니다. 간결한 데코의 다이얼에는 섬세하게 디자인된 블루 도파네 한츠와 아리비아 숫자가 완벽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브닝 룩에 어울리는 시계의 뒷면은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완성해줍니다. 글리터링이 장식된 몽환적인 버건디 레드 라커 다이얼에는 태양 광선을 연상시키는 골드 마감 인덱스가 장식되었습니다. 깊은 밤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신비로운 천체도는 매뉴팩처의 마스터 장인들에게 다시 한번 영감을 선사하여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매료된 여성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줄 타임피스로 탄생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크기 45.6 x 27.4mm

두께 8.5mm

칼리바 822/2 - 매뉴얼 와인딩

케이스 스테인리스 스틸

기능 시분스몰 세컨즈

파워 리저브 42시간

다이얼 와인 컬러 선레이 패턴 어플리케 인덱스

레퍼런스 Q397846J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품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파글리아노 리미티드

크기 47 x 28.3mm

두께 10.3mm

칼리바 854A/2 - 매뉴얼 와인딩

케이스 핑크 골드

기능 앞면 시분스몰 세컨즈

뒷면 세컨즈 타임존 24 시간 낮밤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42시간

다이얼 앞면 블루 선레이 패턴 골드 마감 어플리케 인덱스

뒷면 클루드 파리(Clous de Paris) 피니싱 실버 기요세

레퍼런스 Q398258J

1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품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

크기 47 x 28.3mm

두께 10.3mm

칼리바 854A/2 - 매뉴얼 와인딩

케이스 스테인리스 스틸

기능 앞면 시분스몰 세컨드

뒷면 세컨드 타임존 24 시간 낮밤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42시간

다이얼 앞면 블루 선레이 패턴 골드 마감 어플리케 인덱스

뒷면 클루드 파리(Clous de Paris) 피니싱 실버 기요세

레퍼런스 Q3988482

리베르소 원 듀에토

크기 40.1 x 20mm

두께 9.09mm

칼리바 844 - 매뉴얼 와인딩

케이스 핑크 골드, 스테인리스 스틸

기능 앞면과 뒷면: 시분

파워 리저브 38시간

다이얼 앞면 실버 피니싱 선레이 패턴 기요세/ 뒷면 미드나잇 블루/버건디스핑크 래커 처리

다이아몬드: 56개의 다이아몬드 - 0.63캐럿

레퍼런스 Q3342520, Q3348420, Q3348120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이래 뛰어난 노하우와 예술적 감각, 세련된 스타일과 섬세한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1833년 창립자 앙트완 르쿨트르로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잇는 최첨단 컬렉션들을 제작했습니다.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리리스, 링데부, 애틀모스와 같이 수 세기를 걸쳐 그랑 메종이 구축해온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